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피앤씨테크(237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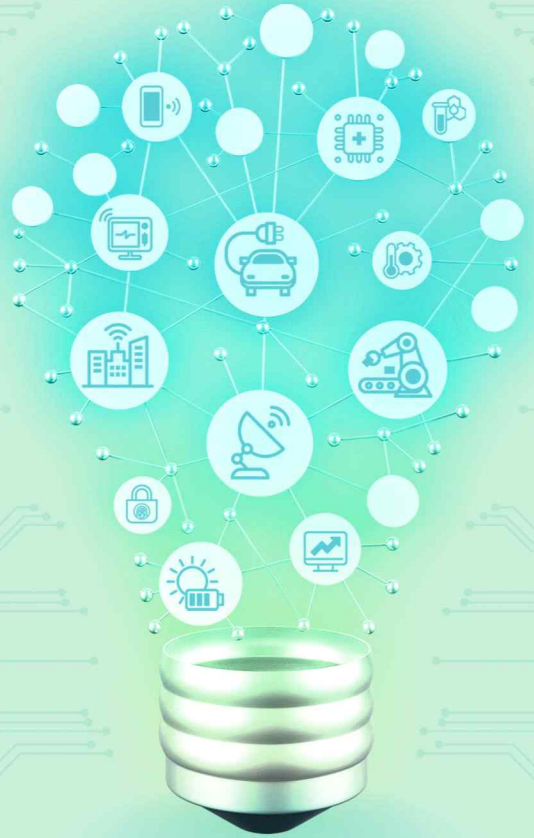
## 일반전기전자

요약

기업현황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주)NICE디앤비

작성자

고원규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20.09.17에 발간된 동 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연계보고서입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앤씨테크(237750)

## 배전자동화 설비 기반 국내외 스마트그리드 사업 영위

### 기업정보(2022/01/05 기준)

대표자	윤남선
설립일자	1999년 03월 03일
상장일자	2016년 07월 04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주요제품	배전자동화단말장치, 디지털 보호계전기 등 디지털 전력기기

### 시세정보(2022/01/10 기준)

현재가	7,510원
액면가	500원
시가총액	487억원
발행주식수	6,496,600주
52주 최고가	13,400원
52주 최저가	5,760원
외국인지분율	4.74%
주요주주	
광명전기 외 5인	44.27%

### ■ 배전자동화 설비 기반 전력관리 IT 기업

피앤씨테크(이하 동사)는 1999년 3월 설립되어, 전력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인프라 비대면화,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여 배전자동화 설비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의 주요제품은 배전자동화 설비와 디지털 보호계전기로,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은 각각 35.6%와 3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사의 배전자동화 단말장치는 1999년 한전KDN 납품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 북미 및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을 통해 국내외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

### ■ 스마트그리드 시장 확대 및 2021년 3분기 매출 반등

동사의 전력IT 기술은 전력망을 지능화 및 고도화하고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전력망 효율화, 환경대응 및 경제성장의 동력 창출 등을 목적으로,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국내 뿐 아니라 북미, 유럽, 아시아 각국에서도 적극적인 투자 및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2021년 431억 달러에서 연평균 19.1% 성장하여 2026년 1,034억 달러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는 2018년부터 3개년간 수주 감소로 외향 하락세가 지속되었으나, 스마트그리드의 고부가가치 제품인 디지털 보호계전기 매출 비중이 증가하며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여 반등을 기록하였다.

### ■ 그린뉴딜 정책 수혜로 동사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수요 증가 예상

정부는 원격 검침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 그린뉴딜정책의 핵심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동사의 주요고객사인 한국전력의 배전선로 자동화 추진사업이 지속되어, 동사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개별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8	227.7	-23.7	18.2	8.0	23.3	10.2	4.1	3.6	13.1	359	8,869	23.4	1.0
2019	214.0	-6.0	22.7	10.6	27.8	13.0	4.7	4.2	14.5	428	9,172	13.0	0.6
2020	196.4	-8.2	10.9	5.5	21.8	11.1	3.6	3.2	12.2	335	9,551	17.6	0.6

## 기업경쟁력

### 디지털 전력 기기 기술 보유

- 전력관리 IT 기술: 계전, 계측, 제어 기술을 적용한 배전계통 최적화 및 자동화
- 산업자원부의 세계일류상품 지정
- 전력감시분야에 특화된 시스템 솔루션 구축

###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 한국전력공사의 배전 및 개폐기 자동화 사업을 위한 지속적인 물량 발주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고장점 표정장치 수주계약 체결
- 해외 25개국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수출 확대

## 핵심기술 및 제품

### 배전 자동화 기술 및 보호계전 기술

- 배전 자동화 기술: 원격감시로 고장점 표시 및 원격제어로 고장발생구간 최소화, 제어장치와 단말장치/개폐기 간 통신망 운영 등
- 보호계전 기술: 외부 시험장치 없이 스스로 고장파형을 생성하여 이상상태 검출 및 차단기 작동

### 동사의 주요제품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FTU-R200 (리클로저(Recloser) 용)**

**디지털 보호계전기: PAC-XF100(배전선로), PAC-XG100(발전기, 변압기, 모선 선로)**

## 시장경쟁력

### 스마트그리드 시장 동향

- 정부 그린뉴딜 정책 및 전력 분야 사업 투자 진행
  - 스마트미터, AMI 등 전자식 전력량계 보급 확대
- 해외 스마트그리드 수요 증가 예상
  - 북미: 에너지 수요 증가로 공공설비 교체 수요
  - 유럽: 저탄소 전기공급 및 청정에너지 확대
  - 아시아: 대규모 인프라 개발로 경제성장 지속

###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

년도	시장 규모	성장률
2021	431억 달러	연평균 19.1% ▲
2026	1,034억 달러	

### 스마트그리드 경쟁업체

경쟁사	주요 사업 및 제품
사이몬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교통통제시스템
세니온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급전자동화시스템
비츠로테크	디지털 보호계전기, 자동절체개폐기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활동 현황

**E**

(환경경영)

- 동사는 전력량을 줄여 화석 연료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동사는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통해 환경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음.

**S**

(사회책임경영)

- 동사는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의 취득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인증을 받음.
- 동사는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수 사원 포상, 우수 발명자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음.
- 동사는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 및 임금 수준이 산업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여성 친화적인 기업임.

**G**

(기업지배구조)

- 동사는 사외 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29.62%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동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감사를 선임하고,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동사는 윤리 규범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정책 및 정보보호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NICE디앤비의 ESG 평가항목 중, 기업의 ESG 수준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현황을 구성

# I. 기업현황

##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및 디지털 보호계전기 기반 스마트그리드 사업 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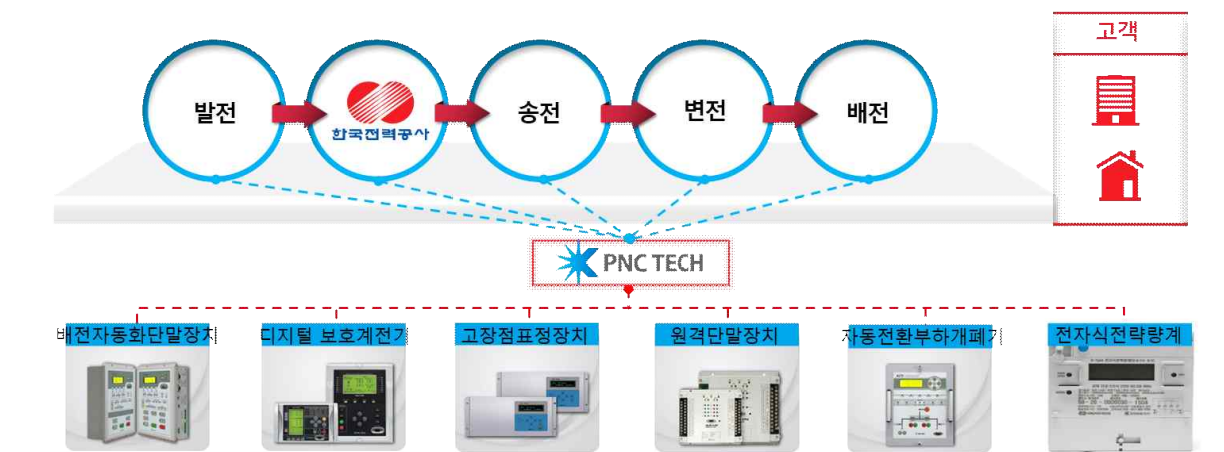
동사는 배전자동화 단말장치와 디지털 보호계전기를 주요제품으로 개발하여, 한전KDN 및 국내외 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특히, 동사의 전력기기 사업은 차세대 IT 융합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 기업 개요

동사는 1999년 3월 설립되어, 전력계통의 배전분야에서 안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디지털 전력기기를 개발하고 있다. 2016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2021년 4월 대표이사가 조광식 이사에서 윤남선 이사로 변경되었다. 동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의 영업사무소 및 경기도 안양시와 전라남도 나주시의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동사가 속한 기업집단은 배전용전기회로개폐 사업을 영위하는 이엔에스, 전기 전력 등 제조 및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엠씨,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동남태양광발전과 KNH솔라가 있다.

[그림 1] 국내 전력산업 구조 및 동사의 제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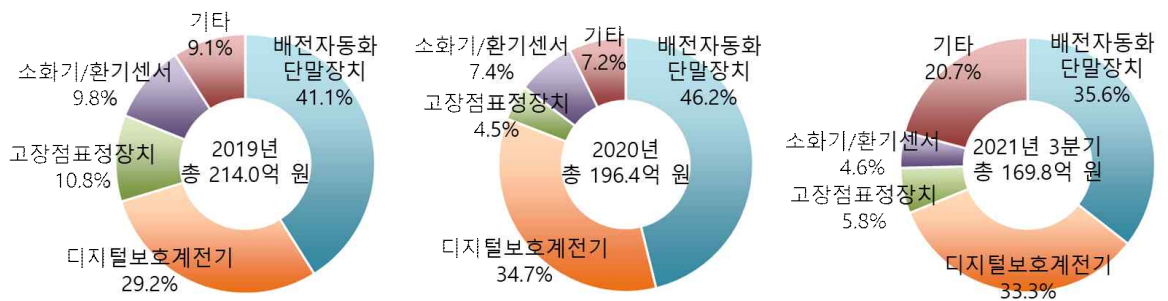


\*출처: 동사 제공자료, NICE디앤비 재구성

### ■ 주요 사업 및 제품

동사의 주요 사업은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이며, 주요 제품은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디지털 보호계전기, 고장점 표정장치 등이 있다. 동사의 분기보고서(2021.09) 기준 전체 매출은 169.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배전자동화 단말장치와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매출액 비중은 각각 35.6%, 33.3%를 차지하였다. 또한, 기타 제품 중 전자식 전력량계의 비중이 2020년 1.5%에서 2021년 3분기 누적 기준 13.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2]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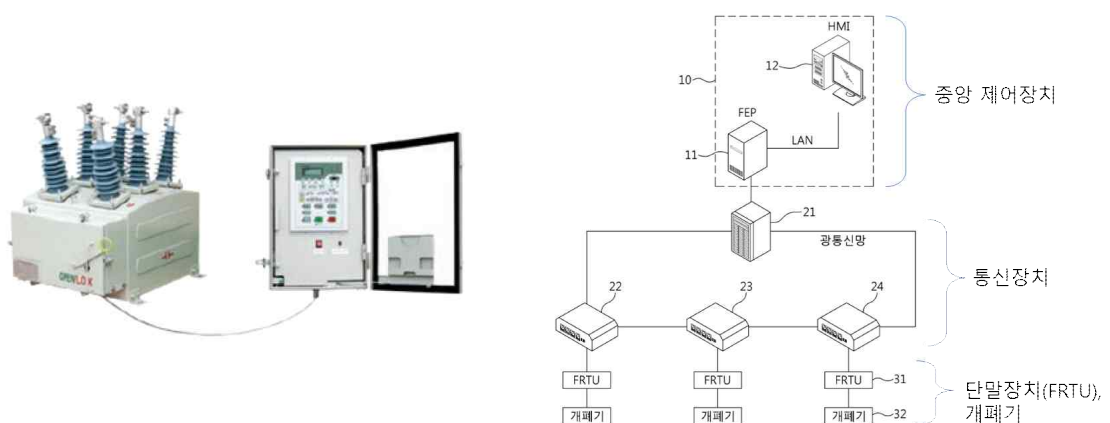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 계측 및 제어 IT 기술이 집약된 배전자동화 시스템

배전자동화 시스템은 크게 중앙 제어장치, 통신장치, 단말장치 및 개폐기로 구성된다. 중앙 제어장치는 배전선로에 위치한 단말장치의 원격감시 및 제어, 계측, 정정 기능을 수행하는 컴퓨터와 통신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전압이나 전류 등 운전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한다. 또한, 고장시에 고장 발생구간을 확인하여 최소한의 고장 발생구간만 일어나도록 통제함으로써 정전시간을 단축시킨다. 통신장치는 중앙 제어장치의 명령을 단말장치로 전송하고 동시에 단말장치에서 측정된 현장기기의 상태를 중앙 제어장치로 제공한다. 이러한 통신장치는 모뎀 및 광통신 혹은 무선통신망으로 구성된다. 단말장치는 개폐기와 함께 배전선로에 설치되어 중앙 제어장치와 개폐기 간을 연결하고, 배전선로의 고장을 감지하여 고장발생구간을 추정하고 개폐기의 선로 개폐를 제어한다.

동사의 배전자동화 시스템은 이러한 배전의 고장구간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계측, 제어 분야의 IT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배전계통 최적화 및 고품질 전력공급의 첨단 미래형 기술이 집약된 전력망 사업의 핵심이다.

[그림 3] 동사의 배전자동화 제품과 구조 및 기능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FTU-R200

배전자동화 시스템의 구조 및 기능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특허(등록10-1997639), NICE디앤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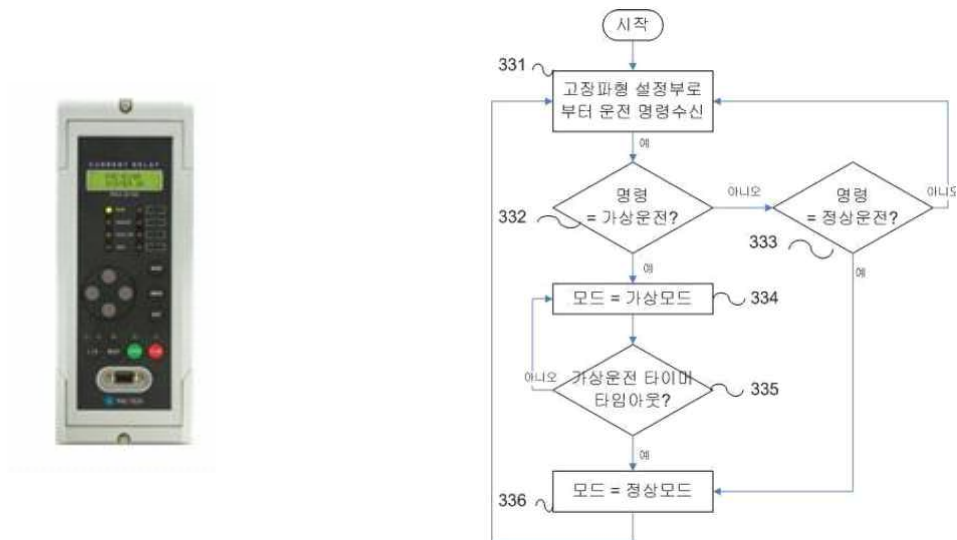
동사의 배전자동화 단말장치(Feeder Remote Terminal Unit, FRTU)는 선로의 개폐를 수행하는 리클로저(Recloser)용 단말장치 FTU-R200, 가공개폐기용 단말장치 FTU-P200, ALTS 콘트롤러 등 기능 및 특징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고 있다. 이에, 동사의 배전자동화 단말장치는 전력업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자원부로부터 2005년 및 2016년 차세대 세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었다.

■ 자체 시험기능이 내장된 보호계전기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피더 보호계전기(PAC-P100), 과전류 보호계전기(PAC-E100), 모터 보호계전기, 변압기 보호계전기, 발전기 보호계전기 등 다양한 보호 요소를 포함하며, 통신을 이용한 원격 계측, 감시, 기록, 제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사의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외부 시험 장치 없이 스스로 고장파형을 생성하여 자체 시험을 통해 과전류, 과전압, 과/저 주파수, 고장 등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이상상태가 검출되었을 때 차단기를 동작시켜 전력기기를 보호하고 고장 파급을 방지할 수 있다.

동사의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기능, 보호대상, 최종 사용자에 따라 크게 4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E시리즈는 기본 아날로그 유도형 계전기 및 정지형 타입의 계전기를 전면적으로 대체 가능한 디지털방식의 전력 보호계전기이다. M시리즈는 E시리즈 2~3대의 보호기능이 합해진 복합형 디지털 보호계전기이며, 과/저 전압 보호계전, 과/저 주파수 보호계전 기능 등이 하나의 계전기에 내장되어 있다. X시리즈는 전기량 계측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계전기 내부 및 외부회로 감시 기능 등 상위 시스템 및 엔지니어링 톨과 연계 가능한 통신기능을 제공한다. K시리즈는 한전용 디지털 보호계전기로 개발된 제품이다. 동사의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배전자동화 단말장치와 더불어 전력사업분야에서 고유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9년 및 2015년 산업자원부로부터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었다.

[그림 4] 동사의 디지털 보호계전기 및 자체 시험기능 방법



디지털 보호계전기 PAC-E100

고장파형 발생기능을 내장한 보호계전기의 동작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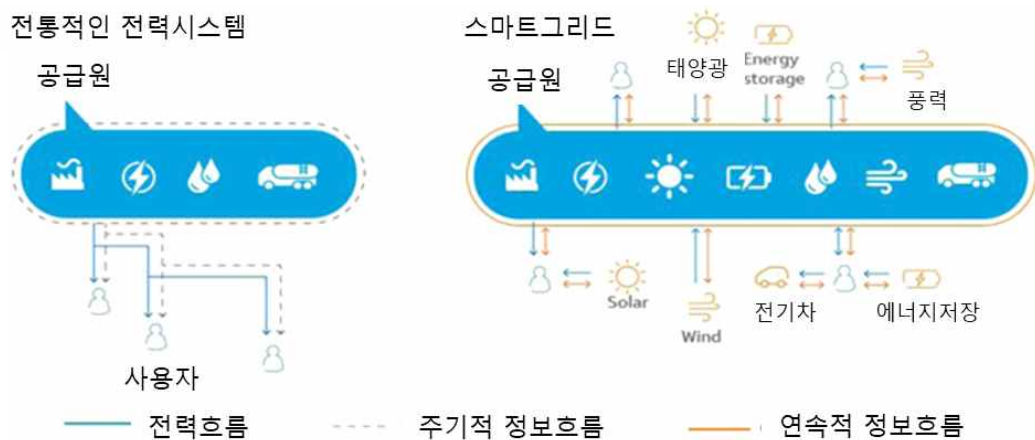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특허(등록10-1207619), NICE디앤비 재구성

## ■ 스마트그리드 시장 및 경쟁사 동향

스마트그리드는 전력공급자와 소비자 간 전력생산 및 소비되는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여, 전력 사용 및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IT 융합 전력망이다. 기존의 전력산업은 전력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던 방식이었으나,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빅데이터 및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다.

스마트그리드 기술은 크게 수요자 및 공급자 간 통신을 담당하는 원격 검침 인프라(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AMI), 소비자가 전력가격에 반응하도록 하는 수요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에너지원을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로 나눌 수 있다.

[그림 5] 전통적인 전력시스템과 스마트그리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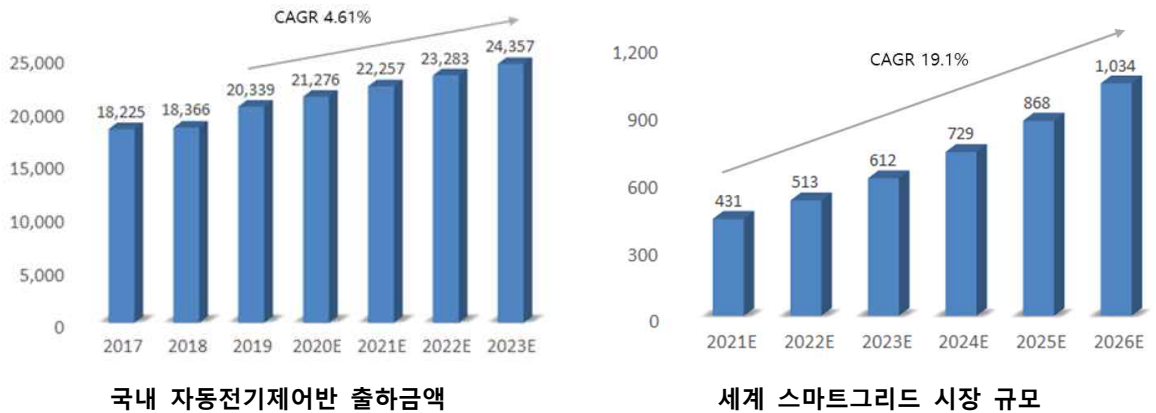
\*출처: AT&T, NICE디앤비 재구성

동사가 속해 있는 자동전기제어반 제조업은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전력공급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촉진요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글로벌 선진업체의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민수시장의 부진으로 기존 기업들의 공공부문 진출 역시 이러한 경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자동전기제어반 출하규모는 2017년 1조 8,225억 원에서 2019년 2조 339억 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61% 증가하여 2023년 2조 4,357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대한 지역별 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Grid 2030을 수립하여 전력설비와 통신기술이 결합된 전력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고 있으며, 노후된 전력설비를 교체하고 배전망의 현대화 및 전력사용의 효율화를 바탕으로 종합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 발전량을 확대하는 ‘Climate & Energy Package 20-20-20’ 정책을 추진하여, 지능형 전력량계 보급 및 국가 및 산업계 간 표준화를 통한 전력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림 6] 국내외 전력 시장규모 및 전망

(단위: 년, 억 원, 억 달러)



\*출처: 통계청, Marketsandmarkets 2021, NICE디앤비 재구성

아시아 역시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스마트미터 보급, 배전자동화 및 그리드 시스템 개선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Marketsandmarkets에 의하면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2021년 431억 달러에서 연평균 19.1% 성장하여 2026년 1,034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별 스마트그리드 시장규모를 비교해보면, 북미의 경우 2018년 78.3억 달러에서 2023년 168.8억 달러, 유럽의 경우 2018년 65.3억 달러에서 2023년 153.5억 달러, 아시아의 경우 2018년 53.4억 달러에서 2023년 177.7억 달러로, 연평균 16.6%, 18.6%, 27.1%의 성장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동사의 경쟁사를 주요 제품군에 따라 살펴 보면, 우선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제품의 내수시장은 동사, 싸이몬, 세니온, 인텍전기전자가 한전KDN에 납품하는 과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디지털 보호계전기 사업분야에 대해 동사는 국내 한전KDN 및 동남아, 인도, 중동, 동유럽, 남미 등 해외시장을 통해 매출을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경쟁사로는 비츠로테크, 세니온, 새롬프로텍 등이 있다.

[그림 7] 경쟁사의 전력 제어 제품



싸이몬,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SCADA



세니온, 가공형 배전자동화  
단말장치



비츠로테크, 디지털 보호계전기  
VIPAM3500

\*출처: 각 회사 홈페이지, NICE디앤비 재구성



싸이몬은 1999년 5월 설립되었으며, 주요 제품은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교통통제신호기 및 시스템, 자동점멸기 및 조명제어장치,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이다. 특히, 자동화 공정에 필요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산업용 자동제어 및 감시장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터치패널 등을 개발하여 수처리 시스템, 전력 제어 시스템, 조명 제어 시스템, 공조 냉난방 감시 제어 시스템 등 국내 산업현장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세니온은 1997년 8월 설립되었으며, 주요 제품은 배전자동화시스템용 원격단말장치, 급전자동화 시스템용 원격단말장치, 무선이동통신용 원격단말장치, 직접부하제어시스템이다. 세니온의 배전자동화 제품으로 가공용 단말장치 FRTU와 지중용 단말장치 FRTU가 있으며, 배전선로 정보 및 선로 고장정보 관리, 개폐기 및 제어함 상태 감시, 원격제어, 데이터 통신, 자기진단 기능을 통한 감시, 선로 이벤트 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비츠로테크는 1968년 1월 설립되어, 2021년 3분기 기준 전력부문의 매출 비중이 4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기중차단기, 배선용차단기, 자동절체개폐기 등 저압기기 부문이 26.7%로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배전반 및 고압기기 부문은 각각 8.0%와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다기능 계전계측기 등의 계전기기의 매출 비중은 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국내 경쟁사 별 재무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평균
싸이몬	매출액	304.5	320.7	357.4	327.5
	영업이익률	1.3	1.5	3.6	2.1
세니온	매출액	237.0	197.9	161.3	198.7
	영업이익률	39.0	22.6	19.4	27.0
비츠로테크	매출액	110.6	307.8	378.1	265.5
	영업이익률	8.0	7.4	11.6	9.0
동사	매출액	227.7	214.0	196.4	212.7
	영업이익률	8.0	10.6	5.5	8.0

\*출처: 각 회사 사업보고서(2020.12), NICE디앤비 재구성

[그림 8] SWOT 분석



■ 동사의 ESG 활동



동사는 전력관리 IT 전문기업으로, 환경(E)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하면 가정이나 회사에서 최대 전력 소비량 대비 대략 10% 정도의 전력량을 줄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전기 생산에 소비되는 화석 연료의 양을 줄일 수 있다. 동사는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경영을 실시하여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다.

동사는 사회(S) 부문에서의 활동으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의 취득으로 품질관리 시스템의 구축 인증을 받았다. 동사는 전용 사육을 두고, 내부에 휴게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노트북 지급, 식비 지원, 음료 제공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동사는 리조트 회원권, 여름 휴가, 근로자의 날, 창립일 휴무 제도, 육아 휴직 제도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으며, 운동회, 야유회, 송년회, 사내 동호회 지원 제도를 두고, 우수 사원 포상, 우수 발명자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주며, 주택자금 대출지원, 개인퇴직연금 가입 제도 등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동사의 2021년 분기 보고서(2021.09)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약 12%로 동사가 속한, 전기장비 산업의 여성 고용비율 평균인 25.58%(2020년도 산업별 여성 고용비율, 고용노동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9년으로 동 산업의 남성 평균 근속연수인 7.9년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으로 동 산업의 여성 평균 근속연수인 6.0년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동사 근로자의 정규직 수 및 근속연수

성별	직원수(명)			평균근속연수(년)		1인당 연평균 급여액(백만원)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동사	동 산업	동사	동 산업
남	57	-	57	8.6	7.9	44	49
여	8	-	8	13.5	6.0	68	32
합계	65	-	65	-	-	-	-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2021.0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또한, 동사의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약 67%로 산업 평균인 65%를 상회하고, 남성대비 여성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111%로 산업 평균인 76%를 크게 상회하여 동사는 성별에 따른 고용평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G)의 경우, 동사 분기보고서(2021.09)에 따르면 동사의 이사회는 총 6인으로, 사외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으며, 최대주주인 (주)광명전기의 지분율이 29.62%로 이를 통해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일정 수준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동사는 경영진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비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감사는 독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22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의결권 행사 지원제도(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 배당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동사는 추후 배당정책을 꾸준히 시행하여 주주친화적 정책을 확대하고자 한다.

동사는 윤리 규범을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고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정보보호(정보보안) 정책을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공개하여 상장기업으로서의 기업공시제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II. 재무분석

### 외형 하락세 지속과 수익성 등락에도 낮은 차입부담으로 우수한 재무구조 견지

최근 3개년간 주요 매출처의 수주물량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직수출 감소로 수익성이 등락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디지털 보호계전기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여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21년 3분기 감소한 수출물량에도 불구하고 내수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매출 및 수익성 등 영업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다.

#### ■ 배전자동화 설비와 계전기 기반 전력 IT 업체

동사는 1999년 설립되어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업으로, 전력 IT 전문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인프라 비대면화, 디지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제품인 배전자동화 설비와 디지털 보호계전기는 전력망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스마트그리드 핵심 설비이다. 동사의 사업보고서(2020.12)에 따르면 2020년 제품군별 매출비중은 배전자동화단말장치 46.2%, 디지털 보호계전기 34.7%, 고장점표정장치 외 기타 19.1%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1999년 배전자동화 단말장치(FRTU)를 개발하여 한전KDN에 납품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부터 북미(미국, 캐나다)와 아세안 지역(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으로의 수출 등 해외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약 25개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내수 판매 70.5%, Local 수출 20.9%, 직수출이 나머지 8.6%를 차지하고 있다.

#### ■ 국내수주 감소 및 직수출 감소로 외형 하락세 지속, 2021년 3분기 매출 반등

최근 2개년간 한전KDN 등 주요 매출처로부터의 수주물량 감소에 따라 2018년 전년 대비 23.7% 감소한 227.7억 원, 2019년 전년 대비 6.0% 감소한 214.0억 원의 매출을 시현하여 외형이 정체되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등의 외부적 영향에 따른 내수 및 직수출 규모 감소로 전년 대비 8.2% 감소한 196.4억 원을 기록하여 최근 3개년간 외형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2020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153.8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169.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여 반등하였다. 이는 2020년 연간 매출액의 86.5%를 차지하여 결산 이후 매출실적이 양호한 수준이다.

#### ■ 최근 3개년간 수익성 등락에도 양호한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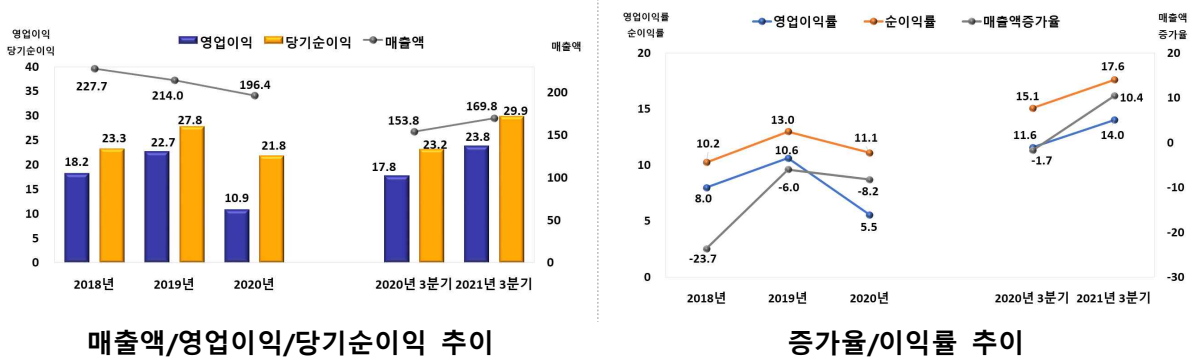
2019년 연간 매출규모 감소에 따른 관관비 부담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인 디지털 보호계전기 등의 매출규모 확대 영향으로 매출원가율은 오히려 감소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6%로 전년 8.0% 대비 개선되었다.

그러나, 2020년 매출원가 부담이 다시 확대되어 매출액영업이익률 5.5%로 다시 하락하는 등 3개년간 영업수익성에 등락을 보였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규모도 2018년 18.2억 원, 2019년 22.7억 원, 2020년 10.9억 원을 기록하며 변동을 나타냈다.

수출에 따른 외환차익 발생, 금융자산 평가이익 및 처분이익 발생 등 영업외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을 상회하고 있다. 최근 3개년간 매출액순이익률은 2018년 10.2%, 2019년 13.0%, 2020년 11.1%를 기록하며 변동을 보였으나 10%를 상회하는 수준을 지속하였다.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8년 23.3억 원, 2019년 27.8억 원, 2020년 21.8억 원을 기록하였다.

2021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23.8억 원(33.7% YoY), 누적 순이익 29.9억 원(28.9% YoY)을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영업실적을 나타냈다.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영업이익률 14.0%, 매출액순이익률 17.6%]

[그림 9]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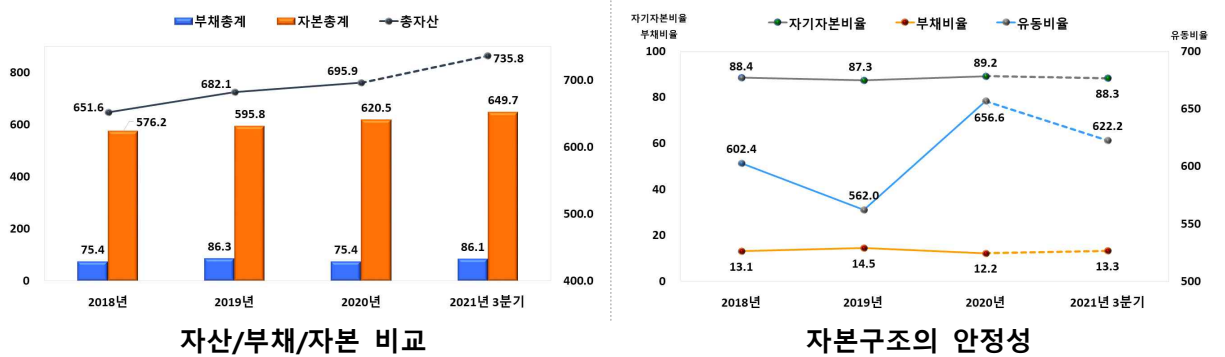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 양호한 수익성과 낮은 여신 리스크로 우수한 재무안정성 견지

2020년 순이익 내부유보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과 미지급금 감소 등 부채 축소로 부채비율 12.2%, 자기자본비율 89.2%를 기록하며 재무안정성 지표가 직전 2개년말 대비 개선되었고, 우수한 수준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양호한 수익성으로 인해 동사의 누적이익잉여금 규모가 크게 성장하여 2020년 말 총자산의 49.3%에 달하는 343.2억 원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3개년말 차입금 24.0억 원(리스부채 제외)로 차입금의존도가 4% 미만을 유지한 바, 전반적인 여신리스크는 낮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2021년 9월 말 기준 부채비율 13.3%, 자기자본비율 88.3%를 기록하며 큰 변동 없이 우수한 재무안정성 지표를 유지하였다. 결산 이후 금융기관 예치금의 증가 등으로 3분기 말 현금성자산 보유고가 67.5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3.2% 감소하였으나, 현금성자산이 전체 자산대비 9.2%로 무난한 현금유동성을 유지하였다.

[그림 10]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개별기준)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표 3] 동사 연간 및 3분기(누적)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K-IFRS 개별기준)

항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0년 3분기	2021년 3분기
매출액	227.7	214.0	196.4	153.8	169.8
매출액증가율(%)	-23.7	-6.0	-8.2	-1.7	10.4
영업이익	18.2	22.7	10.9	17.8	23.8
영업이익률(%)	8.0	10.6	5.5	11.6	14.0
순이익	23.3	27.8	21.8	23.2	29.9
순이익률(%)	10.2	13.0	11.1	15.1	17.6
부채총계	75.4	86.3	75.4	85.7	86.1
자본총계	576.2	595.8	620.5	620.2	649.7
총자산	651.6	682.1	695.9	705.9	735.8
유동비율(%)	602.4	562.0	656.6	585.0	622.2
부채비율(%)	13.1	14.5	12.2	13.8	13.3
자기자본비율(%)	88.4	87.3	89.2	87.9	88.3
영업현금흐름	-10.0	45.0	33.5	30.9	30.8
투자현금흐름	2.7	-39.9	-2.4	-17.5	-34.4
재무현금흐름	0.0	-0.4	-0.4	-0.3	-0.3
기말 현금	35.2	40.5	69.7	53.7	67.5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20.12),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 Ⅲ.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및 해외시장 확대로 인해 동사의 증장기적 실적 안정화 전망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수요 확대에 힘입어 동사의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동사의 대외신인도 또한 우수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바탕으로 증장기적인 실적 안정화가 전망된다.

##### ■ 한국전력의 배전선로 자동화 추진사업 및 그린뉴딜정책 수혜 예상

한국전력은 2015년 이후 전체 배전선로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동사의 배전자동화 단말장치에 대한 지속적인 물량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동사는 한국남부발전과 공동으로 발전기 디지털 보호계전기 PAC-XG100을 개발하여 2015년부터 발전기 보호반 및 변압기 보호반 교체작업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그린 뉴딜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취급되는 스마트그리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동사의 사업 역시 이로 인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20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기반 구축을 위한 원격 검침 인프라 AMI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2020년 1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 분야별 세부과제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에서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다. 이를 위해 아파트 500만 호에 원격 검침 인프라를 보급하고, 친환경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 동사의 디지털 보호계전기, 고장점 표정장치, 전자식 전력량계 등의 전력관리계통 제품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지속적인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사업 확대 전망

현재 국내의 전력기기 시장과 비교하여 볼 때, 해외 송배전기기 시장의 상황은 선진국의 노후 전력기기 교체 및 아시아 국가의 신규 설치 등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력 제품인 배전자동화 기기 시장은 내수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한국전력의 배전자동화 시스템 기술의 인지도가 높아, 한전KDN에 납품하는 동사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외 전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영역에서도,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배전 시스템의 핵심기술을 토대로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진출 및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 동사의 2021년 해외 진출 현황

국가	거래처	제품
러시아	ARUM	급전 단말기 FTU
사우디아라비아	Subway Networks	FTU
과테말라	국내거래처	FTU
중국	Anhui Chardon	FTU
인도	L&T	계전기류(고장점)
인도네시아	Chandra Asri Petrochemical	계전기류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내거래처	FTU

\*출처: 동사 분기보고서(2021.09), NICE디앤비 재구성

■ 증권사 투자의견

최근 1년 내 증권사 투자의견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1] 동사 1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네이버금융(2022년 01월 05일)